소나무 열 그루 단풍 나무 여덟 그루

일반 가정집의 정문처럼 보이는 문이 담장 가운데에 잠겨 있다. 그 양 옆으로 하수구가 각각 하나씩 있다.

도보와 신당의 정문까지 여섯개의 돌판으로 이어져 있다.

신당의 벽은 크림색이고 정문의 문과 비슷한 형태의 문이 달려 있다.

지붕은 초록색 기와이고 솔잎이 쌓여있다.

무단투기경고가 마당에 있다.

오른쪽으로는 분리수거 쓰레기가 들어있는 파란색 지게차와 나뭇잎을 모아 넣은 봉투와 소나무 가지들을 정리한 것들이 있다.

소재지와 설명 이름외의 정보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알 수 없는 장소…

<https://archive.sb.go.kr/isbcc/home/u/story/view/35.do;jsessionid=6204F3269BE9999B0C3C3B80320659EB>

성북마을아카이브의 석관동 도당제 기록.

현재는 굿의 규모가 간소화되었다고 나와있지만 서울에 남은 마을 민속신앙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석관동 도당은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현재는 석관지구대 맞은편에 있다. 약 5∼6평 정도의 시멘트 건물에 지붕은 기와를 얹었으며 당 안에는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아 주저리로 덮어 둔 신위가 있다.

구전에 의하면 현재 중랑구 중화동 봉화산신烽火山神은 도당 할아버지이며, 이 당에서 모시는 천장산신天藏山神은 도당 할머니라고 한다. 원래 의릉懿陵이 들어오기 전에는 천장산天藏山 아래의 산신으로 받들다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동신洞神으로 받들게 되었다고 한다.

당집의 위치에 대해 두 보고서22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맞추어보면 대개 두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고, 따라서 현재의 당집은 세 번째 지은 건물이 된다. 첫 번째 이동은 의릉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당집은 원래 천장산 중턱에 있다가 마을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곳이 1962년 의릉 안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설 때까지 있던 자리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관내에 위치한 의릉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집의 경우는 석관동 주민들이 오랜 전통임을 내세워 계속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보부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집을 정보부 남쪽 담장의 현 위치로 옮겨주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이동이 된 셈이다. 당집은 1990년대에 한 번 수리한 상태이고,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문짝이 뜯기는 등 훼손이 심해지자 철문을 달고 담장을 쳤으며 평상시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골목에 문을 달아 근처까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된 상태다.”

“제사 비용은 마을기금과 주민 추렴으로 충당한다. 마을기금은 주로 동네에 초상이 나서 동네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달공소리를 할 때 상주가 수고했다고 내는 돈을 모아 둔 것이다. 요즘은 도당제를 지낼 때는 구청에서 지원이 9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중계 금액에서 지출한다.”

이 지역을 조사할 때 할머니 신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https://ncms.nculture.org/faith/story/1246>

여기 자료의 할머니신의 설명과 다르게 석관동 도당에서 모신 여신에 대한 기록은

상차림에 근거해 여신이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화가 없거나 전래되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